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 : 김포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Living Condi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Life Cycle
: An Analysi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impo, South Korea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조교수 김정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정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서지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송혜림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Suwon
Assistant Professor Kim, Jung Eun

Dep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Park, Jeongyun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Seo, Jiwon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Song, Hyerim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 록 〉

이 연구는 가족의 다양성 차원에서 1인가구의 보편화 현상에 주목하여, 김포시 1인가구 사례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조사는 김포시 거주 1인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도 8-10월에 걸쳐 대면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생애주기별로 청년/중장년/노년기 1인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였고,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개인생활 영역, 가족관계, 생활만족도 등의 문항을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생애주기별 생활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먼저 1인가구의 식생활관리, 의류관리, 주거관리, 가정관리, 자기돌봄, 경제생활, 여가생활 등에서 생애주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는 생애주기 즉 중노년기보다 청년기일 경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또 돌보아야 하는 가족원의 존재, 1인가구 형성의 자발성, 차별경험, 지역사회인식수준, 유대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1인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다른 욕구 그리고 문제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식주생활, 가정관리, 자기돌봄, 경제생활, 여가 등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경험과 어려움의 차이를 반영하여 맞춤형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1인가구, 생애주기, 생활만족도, 생활실태

*이 연구는 김포복지재단의 “김포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과제관리번호 2022-001) 연구용역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활용한 것임.

**주저자: 김정은(jekim@suwon.ac.kr), <https://orcid.org/0000-0002-9345-0662>

***교신저자: 박정윤(pjy4838@cau.ac.kr), <https://orcid.org/0000-0002-0755-9697>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iving condi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their life cycl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to October 2022, and respondents were single-person households from Kimpo, South Korea. The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to three groups namely,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by life cycle, and items regarding their sociodemographic background, personal life, family relations, and life satisfactio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ke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life cycle in the respondents' diet, clothing, housing, financial and home management, self-care, and leisure life. Second,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the life cycle with young adults showing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having a family member to care; living alone voluntarily, discrimination experience; community awareness; and 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s, it is clear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different needs and problems in each stage of life cycle. Thus, to reflect the different experiences and nee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life cycle, tailored policy and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Key words: single-person households, life cycle, life satisfaction, living condition

I. 서론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다양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가족의 역동적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2a) 보고에 따르면 2021년도 1인가구는 전체 가구(2144만8000가구)의 33.4%인 716만 6000가구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에서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되어 왔는데, 2016년 27.9%에서 2018년 29.3% 그리고 2019년에 30% 대를 넘어섰다(통계청, 2022b).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일상적인 삶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사회구조 등의 변화를 종합할 때 앞으로도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1인가구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시장의 변화, 1인가구 대상 정책과 제도적 서비스 그리고 현장의 변화 등이 부각된다. 특히 학문적으로는 1인가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데, 연구의 결과들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 제도적 서비스 기획과 개발,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의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양성 및 배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의 실태와 인식에서부터 구체적으로는 여가생활, 소비생활, 워라벨, 돌봄, 가족관계, 가정경영과 가족자원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인가구를 주제로 실시된 연구들의 동향을 보면, 이전에는 전국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그 특성이나 요구도 분석 등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나아가(예: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홍승아 외, 2017) 최근에는 1인가구를 성별, 연령, 혼인여부 등에 따라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 특성이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박미선 외, 2017; 정영금·윤소영, 2018; 송나경, 2021). 1인가구 안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연령, 생애주기, 거주지역, 취업유무 등을 반영하여 집단별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 조례 제정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들에서도 대부분 1인가구를 성별, 연령이나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변미리 외, 2019; 권안나, 2019; 황경란 외, 2021; 김정은 외, 2022).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1인가구 형성 계기부터 현재의 생활만족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모습과 발달과업, 과업의 달성이나 지연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생애주기이론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생활실태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포시 1인가구 사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¹⁾, 김포시는 한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김정은 외, 2022) 2022년도 본 연구가 수행되는 시점에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통합적인 1인가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작업

1) 이 논문은 김포시복지재단의 위탁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임. 따라서 연구의 지역적 범주와 대상이 김포시로 국한됨

이 최근 시작된 김포시를 사례로 1인가구의 실태와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결과는 1인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지원체계가 아직 충분치 않은 국내 많은 지역들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를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 즉 의식주생활과 가정관리, 돌봄, 여가, 경제생활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생활만족도와 그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구체적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김포시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중장년·노년기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포착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정책과 사업 설계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1인가구의 개념

1인가구란 홀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구를 뜻하는데, 1인가구 지원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뜻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1인가구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의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인 김포시 1인가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뜻하며, 이에 따라 김포시 1인가구는 비혼 또는 미혼의 상태로 홀로 살고 있는 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시점에서 김포시에 거주하며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2. 1인가구 현황

보도된 2022년도 통계청(2022a)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전체 가구 중 33.4%가 1인가구로 전체 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10가구 중 3가구가 1인가구임

을 알 수 있고, 국내 1인가구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30%를 넘는 이후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1.5%로 가장 높고 차순위는 20.8%인 서울특별시이다. 3순위인 부산광역시부터는 1인가구 비중이 10% 이하로 다소 격차가 있다. 전년 대비 전국 1인가구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증가율(9.8%)을 보였고, 차순위로 인천과 광주광역시(9.5%)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역에 따라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30대 이하와 40-50대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상위 5순위 지역에 포함된다(통계청, 2021). 2022년도 공시 자료에 따르면(통계청, 2022c), 경기도의 30대 이하 증가율(20대 초반 6.7%, 20대 후반 14.0%, 30대 초반 17.1%, 30대 후반 5.8%)이 전국 평균(20대 초반 0.1%, 20대 후반 12.4%, 30대 초반 14.0%, 30대 후반 4.8%) 대비 높게 나타나 이러한 양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22년도 공시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1인가구를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각 생애주기별 비율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청년기 1인가구는 36.4%, 중장년기 1인가구는 37.9%, 노년기 1인가구는 25.7%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전국 지역별 생애주기에 따른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제주, 울산, 인천, 경남과 더불어 중장년기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노년기 1인가구의 비율은 적은 편으로 전국 지역 대비 하위 3순위에 속한다(세종 14.1%, 서울 19.3%, 경기 21.5%의 순서). 청년기 1인가구 비율은 37.1%로 상위 4순위를 차지하여(세종 51.3%, 서울 49.1%, 광주 39%) 타지역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경혜(2021)의 연구에 따르면, 김포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4%를 차지하며, 경기도 내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시군구별 1인가구 분포를 생애주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김포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치와 거의 유사하였고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청년기 1인가구는 다소 낮았고(경기도 평균 36.5%, 김포시 36%), 중장년기 1인가구는 다소 높았다(경기도 평균 42.3%, 김포시 44%). 노년기 1인가구 비율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다소 낮았다(경기도 평균 21.2%, 김포시 평균 20.1%).

3. 1인가구 생활실태 및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1) 생애주기별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 고찰

최근 1인가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 1

2)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통계청 및 국가보조사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행복주택 기준 등을 적용하여 청년기 19-39세, 중장년기 40-64세, 노년기 65세 이상으로 살펴보았다. 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는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등과 같이 연령대별 자료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통계청 자료 분석 내용 중 청년기는 20-39세를 뜻한다.

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실시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먼저 성남시(변미리 외, 2019)의 경우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만족도 및 불편사항, 여가 및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반려동물, 거주지, 통근 또는 통학, 안전, 성남시 정책 등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는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인 1인가구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만족+약간 만족)은 49.7%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3%였다. 연령별로 볼 때 청년기에 속하는 30대 응답자들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조사에서는 1인가구 생활에 대하여 건강상태, 주거환경,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상태 등 4가지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응답자 74.7%,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응답자 39%, 여가 및 문화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 38.7%, 그리고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26.7%로 나타났다.

울산시 실태조사에서는(권안나, 2019) 생활 및 가치관, 주거 및 안전, 일·생활 균형 및 경제생활, 건강 및 노후생활, 여가 및 돌봄/사회적 관계망, 정책수요조사 등 6개 영역에 대해 설문 이 실시되었다.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는 응답의 비율이 53.4%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일생활 균형에 있어 노년기 집단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노년 집단에서 저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생애주기 집단에 비해 높았다. 월평균 도움을 받는 금액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별 차이가 유의했는데, 중장년기 집단이 가장 높았고 일시금 지원금액은 청년기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에 있어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중장년과 노년기 집단에서 '식료품비'로, 청년 집단은 '외식비'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에 있어 청년층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는 '월 1-2회 정도 자주 가끔'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가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년층은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 응답율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시간에서의 응답율이, 노년층은 '휴식활동'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있어서는 중장년층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사회관계에 대한 문항에 있어서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거나 타인과의 교제가 충분하다거나 다른 세대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에 있어 모두 청년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광명시의 실태조사(김성천·강남기·장지인, 2020)에서는 1인가구 일생활, 주거환경, 경제·일자리, 안전, 건강/의료/보건, 문화/여가/사회적 관계, 복지(정책수요)로 설문영역이 분류되어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1인가구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만족한다(매우 만족+다소 만

족)'고 답한 비율이 55.3%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볼 때 40대 이하 청년기에 속하는 집단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0.1%였고 남성 및 30대 이하 청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로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43.5%였고 남성과 20대 청년기 응답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있어서는 42.6%가 '만족한다'고 답하였는데, 남성과 30대 이하 청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에 대해서는 34.4%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30대 이하 청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36.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연령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리시 실태조사(허철희 외, 2021)에서는 1인가구의 삶, 경제활동과 소득, 주거환경 및 안전,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및 여가활동, 1인가구 지원정책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홀로 사는 것에 대해 75%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만족도 수준은 비슷하였으나 불만족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 50대 이후 중장년기부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혼자 살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혼자 살면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60대가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20-30대는 주된 수입원이 근로소득으로 나타났고, 50-60대는 근로소득과 실업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지원받는 수준에 있어 60대는 전혀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율이 8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른 연령대에서도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50대 61%, 40대 41%, 30대 39% 순으로 나타남). 식사 해결에 있어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1.9%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볼 때 50대 이상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30대에서는 배달음식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고, 40대의 경우 직장에서 먹고 오거나 반찬가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가장 많았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위급 시 도와줄 사람이 있는 응답률은 6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56.5%) 30대에서 가장 높았다(72%)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0.2%). 또 여가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문항에서 30-40대는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이 늘었다.

한편 홍승아 외(2017), 노경혜 외(2018), 황경란 외(2021) 등의 연구는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1인가구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들로, 설문문항의 수와 내용, 표집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 실태조사들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홍승아 외(2017)의 연구는 전국 2,000명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생생활, 결혼과 성, 일,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주거와 안전, 경제생활, 노후, 정책(정책수요), 응답자 특성 등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인가구로서 사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33%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1인가구 일자리 만족도를 보면 평균 2.88점으로 중앙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미미하게나마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 차이를 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 높았으나, '보통'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평균 3.15점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더 높았고, '약간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노경혜 외(2018)의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17년 '경기도 사회조사', 그리고 2016년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고 FGI를 통한 심층면접을 총 10개 집단에 대해 실시하여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요구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설문문항의 내용을 보면, 1인가구 형성과 유지, 주거 및 교통, 일자리와 소득, 사회적 관계망과 여가 및 건강관리, 삶의 질 등 총 6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FGI에서는 각 집단의 취약점과 관심사를 분류하기 위해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망, 여가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인가구로 사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7.6%였고 '보통'은 46.8%였다. 남성 1인가구가 여성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생애주기별로 볼때 청년기, 노년기, 중장년기 순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 1인가구가 거주지에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고, 청년기보다 중장년기와 노년기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생애주기별로 볼때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1인가구 순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황경란 외(2021)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3,50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FGI를 통해 심층 욕구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인 가구의 삶, 주거환경 및 주거비용, 안전, 건강,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경제활동, 코로나19 전후 상황, 정책 수요 등 총

9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총 4개의 생애주기별 집단으로 진행했는데, 청년기(20-34세), 장년기(35-49세), 중년기(50-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로 사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3.48점(5점 만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50대 미만 집단은 평균 3점대, 50대 이상 집단은 2점대로 나타남), 여성의 만족도(3.52점)가 남성(3.45점)보다 높았다.

김영란 외(2021)의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로, 2020년도에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문항들이 처음 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설문내용은 1인가구 직전 동거한 사람, 1인가구가 된 이유 등 1인가구 형성, 1인가구 경제실태, 원가족 관계나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돌봄, 1인가구 생활상 어려움과 사적 지지망, 정책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실태조사는 전국 10,997개 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을 응답자로 하고 있으며, 그 중 1인가구 설문문항에 응답한 사례는 총 6,194명이었다. 응답자 중 중장년 및 노년기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이 61.1%로 고령층 응답자가 과반 이상이었다. 이 조사는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1인가구 삶이나 일상 관련 만족도 문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조사에서 연령에 따른 응답 차이가 보이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1인가구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생활비 마련에 있어 20-50대의 청년 및 중장년층은 본인 스스로, 60대 이상 노년층은 공적 지원을 통해 마련한다는 응답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지출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에 있어서도 연령별 차이가 보였는데, 20대 이하의 경우 식비의 비중이 높았고 20-50대는 주거비, 60대 이상은 의료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비동거 가족에 대한 돌봄 여부에 대해 92.1%가 돌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볼때 돌보는 가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청년기인 30대 이하와 장노년기인 60대 이상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중년기의 경우 다른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1인가구로 사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청년기인 20-30대 집단은 균형 잡힌 식사와 가사가 각각 상위 1, 2순위로 나타났고 중장년기인 40-50대 집단에서는 균형잡힌 식사,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 어려움으로, 6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부양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함을 꼽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생애주기별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생애주기별 1인가구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 고찰

특정 세대나 생애주기의 1인가구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연구들은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

으나, 생애주기별 비교분석을 실시하려는 시도들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서지원과 양진운(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2016)를 사용하여 생애주기별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는 청년(노인)·중장년기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러 하위영역(건강, 소득, 주거,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만족도)에서 청년기 1인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기 1인가구의 경우 건강만족도 변수만 노년기 1인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한 강은나와 이민홍의 연구(2016)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는 1인가구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독립한 집단과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집단으로 양분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중년기 1인가구는 노년기 1인가구와 특성이 유사한데, 다만 위험이나 문제의 강도에 있어서 노년기 1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 다른 선행 자료들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 즉 경제, 건강, 주거환경, 그리고 사회관계적 등이 이 연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국복지패널 5개년도 자료를 통해 1인가구의 세대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종단분석 연구(김재남, 2021)에서는 1인가구를 X세대, Y세대, 베이비부머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생활만족도는 베이비부머세대 < X세대 < Y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우울감을 분석한 송나경의 연구(2021) 결과에 따르면, 우울경험이 청년과 중장년기 1인가구에 비해 노인기 1인가구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소득과 경제활동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기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관적 건강, 직업만족, 여가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우울 위험이 낮았으며,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 주관적 건강이 좋고, 소득, 직업만족, 여가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우울 위험이 낮고, 주거 빈곤문제를 가진 경우 우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1인가구의 세대별 여가행태를 제시한 정영금과 윤소영의 연구(2018)에서는 1인가구를 청소년세대, 에코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노년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세대별 여가특성을 비교하고, 여가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대별 여가특성이 다르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가균형, 시간자원의 관리, 여가경력관리 등 세대별 특성에 따라 행복 증진에 필요한 맞춤형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미숙과 김안나(2020)의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삶의 만족도 수준에 있어 청년기 1인가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중년과 노

년기 1인가구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저연령일 때, 종교가 있고 건강하며 비흡연자일 경우, 자존감은 높고 우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중년기 1인가구는 여성, 건강하고, 소득이 많을 때, 자존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 1인가구는 여성, 고연령, 건강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주거를 소유한 경우, 음주를 하는 경우 그리고 자존감은 높고 우울감이 낮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기한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경제생활, 식생활, 여가생활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들의 경우 의식주 및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 있어 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나, 조사비용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실태조사문항을 구성함에 있어 생활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관리, 경제생활, 가족생활, 여가생활 등으로 영역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고찰에서 드러났듯이 1인가구의 일상생활 전반 또는 세부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연령 또는 생애주기에 따른 비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행복도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요인의 차이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라 1인가구의 개인 및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1인가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1인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상생활(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가정관리, 자기돌봄), 경제생활, 여가생활 등 개인생활 실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1인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생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22년 (재)김포복지재단의 의뢰에 따라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근거로 하여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용역(“김포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의 일부 자료인 1인가구 대상 질문지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김포시 거주 1인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20~39세인 청년기 1인가구, 40~64세인 중장년기 1인가구, 65세 이상인 노년기 1인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질문지 문항 중 김포시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생활 영역, 가족관계, 생활만족도 등에 관한 자료의 일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 평균(M)과 표준편차(SD)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김포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60.1%로 남성 39.9%에 비해 많았고, 생애주기별 분포를 보면, 노년기 1인가구가 41.9%로 가장 많았고, 청년기 1인가구, 중장년기 1인가구가 각각 33.6%, 24.5%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46.6%로 가장 많았고, 사별(26.5%), 이혼·별거(20.2%), 기혼(6.7%) 순이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 이상이 가장 많은 32.8%, 중졸 이하 30.0%, 고졸 28.1%, 전문대졸 8.3% 순으로 많았다. 고용형태는 미취업 상태가 가장 많은 40.3%였으며, 임금근로 가운데는 상용근로가 25.7%, 임시·일용 근로가 19.7%, 특수근로가 6.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생활만족도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7개 영역(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가정관리, 자기돌봄, 여가생활,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정의하며, 각 영역을 5점 척도(‘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로 측정된 값을 합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즉,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성별	여성=1, 남성=0
생애주기	만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기 1인가구(20~39세), 중장년기 1인가구(40~64세), 노년기 1인가구(65세 이상)로 구분함
교육수준	졸업 학력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함
혼인상태	‘미혼’, ‘기혼’, ‘이혼·별거’, ‘사별’로 구분함
주택점유 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 및 기타’로 구분함
개인소득	연간 개인소득액(단위: 만원)
자산	자산의 합계(단위: 만원)
부채	부채의 합계(단위: 만원)
지출	월 소비지출액(단위: 만원)
1인가구 기간	1인가구로 살아온 기간은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함
자발성	1인가구로 살아가기로 한 결정의 자발성 여부 (자발적 1인가구=1, 비자발적 1인가구=0)
차별경험	가족, 이웃주민, 관공서, 모르는 사람, 지인, 그밖의 사람 등 6개 주체로부터의 1인가구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 여부(차별경험 있음=1, 차별경험 없음=0)를 합하여 차별경험 수준을 측정함. 즉 차별경험은 0~6점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함
돌봄 가족 존재	거주를 달리 하는 가족 가운데 돌보아야 할 가족원이 있는지 여부(1= 있음, 0= 없음)로 측정함
지역사회 인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전혀 모른다=1 ~ 매우 잘 안다=5)로 측정함
유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전혀 없다=1 ~ 충분하다=5)로 측정함

편,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2.4%, 1.2% 순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1인가구로 살아온 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이 가장 많은 45.8%, 10년 이상이 40.3%, 5~10년인 경우가 13.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형태는 월세가 가장 많은 37.5%, 전세가 22.5%, 자가인 경우가 14.6%, 보증부 전세가 12.3%, 무상 및 기타인 경우가 12.3% 순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 M(SD)
성별	여성	152(60.1)
	남성	101(39.9)
생애주기	청년기 1인가구	85(33.6)
	중장년기 1인가구	62(24.5)
	노년기 1인가구	106(41.9)
혼인상태	미혼	118(46.6)
	기혼	17(6.7)
	이혼·별거	51(20.2)
	사별	67(26.5)
교육수준	중졸 이하	76(30.0)
	고졸	71(28.1)
	전문대졸	21(8.3)
	대졸 이상	83(32.8)
고용형태	상용근로	65(25.7)
	임시·일용 근로	50(19.7)
	특수 근로	16(6.3)
	자영	6(2.4)
	무급 가족종사	3(1.2)
	미취업	102(40.3)
1인가구 기간	5년 미만	116(45.8)
	5~10년	34(13.4)
	10년 이상	102(40.3)
	자가	37(14.6)
주택점유형태	전세	57(22.5)
	보증부 전세	31(12.3)
	월세	95(37.5)
	무상·기타	31(12.3)
	n	253(100.0)

2. 김포시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개인생활실태

1인가구의 식생활관리, 의류관리, 주거관리, 가정관리시간, 자기돌봄의 개인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의 수준에 대해 생애주기에 따른 집단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일상생활 차이

1인가구의 식생활관리에 대한 8개 문항(5점척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생애주기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식재료

낭비, 식재료 구매 어려움, 조리공간의 협소·불편, 배달음식 이용, 균형 잡힌 식사, 혼자 하는 식사를 즐기는 수준 등이었다.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식재료 낭비, 식재료 구매, 조리공간 문제, 배달음식 이용, 균형 잡힌 식사 등의 측면에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기 1인가구에서 노년기 1인가구보다 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혼자 하는 식사를 즐기는 수준은 청년, 중장년, 노년기 1인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관리에 대한 4개 문항(5점척도)에서는 빨래 건조 문제와 사계절 의류 정리의 어려움에 대한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서 살펴본 식생활관리와는 달리, 노년기 1인가구가 다른 생애주기의 1인가구에 비해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관리에 대한 7개 문항(5점척도)에서 생애주기별 차이를 나타낸 영역은 넉넉한 주거공간, 수납공간의 부족, 지인 초대 적합성의 4개 영역이었다. 이때,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식생활관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에 비해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주거관련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관리시간은 식사준비, 의류관리, 청소·정리정돈, 차량관리, 반려동물 돌봄, 상품구매의 6가지 활동에 하루 동안 사용한 시간으로 측정하였는데, 세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의류관리시간이었다. 1인가구가 하루에 의류관리에 사용한 시간은 중장년기 60분, 노년기 49분, 청년기 33분 순이었다.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기돌봄 수준(5점 척도)이 어떠한지를 신체적 자기돌봄과 정신적 자기돌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기 1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약간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경제생활 실태

1인가구의 경제생활을 연소득, 월생활비, 자산, 부채, 투자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생활구조에 대해 생애주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연소득은 1년간 획득한 개인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자배당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6개 하위항목으로 측정하였다. 1인가구의 연소득 수준은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기 1인가구 2,728만원, 중장년기 803만원, 노년기 321만원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연소득을 구성하는 하위항목 중 생애주기별 차이가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3개 항목이었다. 근로소득의 경우 청년기 1인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장년, 노

〈표 3〉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일상생활의 차이

	청년		중장년		노년		차이검정 (x2, F)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식생활관리							
식재료 낭비	3.69	1.22	3.34	1.24	2.75	1.21	14.10***
식재료 구매 곤란	3.71	1.09	3.57	1.22	3.13	1.19	6.35**
조리공간 협소·불편	3.48	1.14	2.84	1.23	2.31	1.14	31.66***
주로 배달음식 이용	3.49	1.11	2.34	1.12	1.67	.81	66.11***
직접 요리하지 못함	2.62	1.26	2.46	1.19	2.44	1.20	3.01
충분한 영양정보	2.88	1.10	2.93	1.00	2.94	.94	.10
균형 잡힌 식사를 함	2.53	1.04	2.36	.91	2.83	.93	5.12**
혼자 하는 식사 즐김	3.16	.94	2.87	1.13	2.45	.91	12.64***
의류관리							
세탁 설비 수준	3.72	.83	3.73	.83	3.94	.84	2.17
제때에 빨래하기	3.74	.95	3.94	.70	3.85	.89	.88
빨래 건조 문제	3.45	1.13	3.66	.89	3.67	.99	4.23*
사계절 의류 정리 어려움	3.26	1.13	3.36	.98	3.40	1.04	4.56*
주거관리							
넉넉한 주거공간	3.14	.97	3.31	1.10	3.56	1.05	3.97*
깨끗한 청소상태	3.54	.95	3.65	.79	3.58	.91	.24
수납공간의 부족	3.44	.99	3.10	1.16	2.69	.95	12.82***
지인 초대 적합성	3.19	1.03	2.77	1.08	2.75	1.03	4.77**
소방시설 갖춤	3.44	.85	3.55	1.07	3.56	.93	.45
방범시설 갖춤	3.25	.83	3.31	.95	3.44	1.02	11.06
집주변과 동네안전	2.52	.88	2.50	.94	2.44	1.04	1.57
가정관리시간(단위: 분/하루)							
식사준비	35.49	28.98	48.33	39.77	46.86	38.05	2.95
의류관리	33.41	26.34	59.92	66.77	49.32	28.28	7.62**
청소정리정돈	32.99	22.57	34.39	24.91	37.74	30.11	.74
차량관리	6.13	13.98	3.17	7.84	2.13	2.58	3.00
반려동물 돌봄	12.22	32.41	11.42	29.62	4.88	27.44	1.42
상품구매(쇼핑)	34.68	27.34	34.38	42.57	27.35	34.33	1.13
자기돌봄							
신체적 자기돌봄	3.41	.98	3.23	.96	3.45	.97	1.03
정신적 자기돌봄	3.44	.99	3.38	.95	3.52	.98	.47
n	85		62		106		-

* $p < .05$, ** $p < .01$, *** $p < .001$

년기 1인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소득의 경우에는 중장년기 1인가구가 가장 많고, 노년기, 청년기 1인가구 순이었다. 1인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노년기 1인가구가 13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년은 70만원, 청년 세대는 10만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월생활비(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경조사비, 기타)의 차이도 생애주기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1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청년기 1인가구가 1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기 76만원, 노년기 64만원 수준이었다. 월생활비 구성하는 13개 하위항목 중 세대별 차이가 유의한 것은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보건,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경조사비의 8개 항목이었다. 이 가운데,

보건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청년기 1인가구의 월생활비 지출액이 가장 많았다. 노년기 1인가구의 지출액이 중장년기보다 더 큰 항목은 보건, 오락/문화, 경조사비의 3개 항목이었다.

자산수준을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거주주택 부동산, 비거주주택 부동산, 자동차, 기타의 6개 하위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생애주기별 자산 수준은 중장년기 1인가구가 가장 많은 9,779만원, 노년기는 4,918만원, 청년기 4,253만원 순이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산의 하위항목 중 자동차만이 유일하게 세대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1인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의 2개 하위항목으로 조사한 부채액은 중장년기 1인가구가 2,3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기 1,954만원, 노년기 910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투자수준은 주식투자, 채권투자, 가상자산투자, 기타의 4개 하위항목으로 조사하였다. 평균 투자금액을 생애주기별로 비교하면 중장년기 1인가구가 가장 높은 3,777만원, 청년기 312만원, 노년기 151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투자자산별로도 생애주기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투자하지 않은 하위영역이 없었으나, 중장년기에서는 채권투자를 한 경우가 없었고, 노년기 1인가구는 채권투자 외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경제생활의 차이

	청년		중장년		노년		차이검정 (x2, F)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연소득(만원)							
근로소득	2,526.58	1,663.64	637.35	984.35	162.58	328.71	109.85***
사업소득	171.55	1,310.51	13.21	73.59	2.30	12.54	1.24
자산소득	.12	1.09	34.11	171.99	9.54	85.21	3.13*
이자배당소득	4.07	22.97	30.18	171.60	2.97	29.85	2.09
공적 이전소득	10.12	35.96	69.79	206.41	131.06	229.91	10.35***
사적 이전소득	15.24	85.27	14.82	57.75	15.69	74.19	.00
소계	2,727.68	1,898.55	802.51	1,111.44	320.97	425.66	86.26**
월생활비(만원)							
식료품/비주류음료	28.35	26.76	20.41	17.32	20.54	24.26	2.85
주류/담배	4.2	10.39	3.36	7.92	2.87	7.96	.50
의류/신발	9.06	10.71	2.62	4.76	2.45	6.70	17.65***
주거/수도/광열	18.31	19.74	11.04	16.02	10.60	13.66	5.5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22	7.72	1.42	4.65	2.44	6.86	1.16
보건	3.90	9.03	2.85	7.49	9.64	15.43	7.76**
교통	9.07	10.00	6.13	10.35	3.19	5.89	10.35**
통신	6.24	5.23	13.39	70.61	1.80	2.50	1.99
오락/문화	9.20	16.20	.91	3.35	1.11	5.98	16.23***
교육	4.91	16.51	1.91	10.91	.15	1.13	4.11*
음식/숙박	30.06	43.60	5.47	12.03	3.92	10.01	23.64***
경조사비	7.51	11.24	1.82	4.55	3.87	10.34	6.14**
기타	5.84	19.05	4.36	11.75	1.52	5.4	2.53
소계	137.75	92.32	75.69	75.94	64.11	48.28	24.26***
자산(만원)							
저축액	1,260.39	1,641.21	830.00	2,595.36	602.52	1717.40	2.39
전월세보증금	1,742.99	3,542.55	1,007.83	1,947.52	1,259.67	2382.92	1.23
거주주택 부동산	1,051.95	4,806.51	3,867.92	15,616.85	2,929.38	9010.84	1.39
비거주주택 부동산	.00	.00	3,962.26	23,885.92	.03	.31	2.34
자동차	220.13	591.85	107.36	461.55	20.11	117.22	4.72*
기타	45.45	345.857	3.96	27.48	6.09	58.38	.94
소계	4,252.76	6,247.50	9,779.34	38,855.77	4,917.82	9860.59	1.30
부채(만원)							
금융부채	1,225.11	5,653.68	1,831.70	6,764.56	306.87	885.88	1.92
임대보증금	726.28	1,866.31	479.11	1,186.86	602.64	1,687.49	.37
소계	1,954.28	6,513.32	2,310.80	6,797.85	909.51	1,877.34	1.52
투자(만원)							
주식투자	195.25	512.91	94.64	478.414	118.28	689.19	.61
채권투자	13.10	109.52	0	0	0	0	1.07
가상자산 투자	14.05	55.95	87.72	662.27	0	0	1.36
기타	89.29	765.05	3,529.82	26,488.15	32.26	311.09	1.53
소계	311.68	937.71	3,776.78	26,711.71	150.54	75.03	1.57
n	85		62		106		-

* $p < .05$, ** $p < .01$, *** $p < .001$

3)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여가생활 실태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여가생활 실태는 <표 5>와 같다. 여가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청년기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이어 중장년, 노년기 순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각각 97분과 143분을 사용하였고, 중장년은 각각 77분과 86분을 사용하였으며,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52분과 51분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1인가구가 주로 하는 여가활동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청년기의 경우 미디어 이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TV시청, 휴식 순이었으며, 중장년기는 TV시청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 종교 순이었다. 노년기 1인가구 역시 절반을 넘는 55%가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종교와 휴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여가를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애주기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중의 여가는 모든 집단에서 주로 혼자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인가구 생애주기별로 혼자 여가를 하는 비율은 중장년기에서 77%, 노년기에서 69%, 청년기 1인가구 59%의 순이었다.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여가활동을 혼자 한다는 응답에 이어 친구나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주말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주중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중장년 및 노년기 1인가구는 혼자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주중과 달리 주말에는 친구나 이웃과 함께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여가시간의 충분도(5점척도)는 생애주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년, 중장년, 청년기 1인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충분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 앞서 살펴본 여가시간 사용량의 생애주기별 분포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 및 중장년기 1인가구는 각각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보통'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나, 여가시간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편임을 알

<표 5>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여가생활의 차이

	청년		중장년		노년		차이검정 (x ² , F)
	빈도 (평균)	% (SD)	빈도 (평균)	% (SD)	빈도 (평균)	% (SD)	
여가시간(분/하루)							
주중 여가시간	97.4	79.8	76.9	93.8	52.0	94.6	6.01**
주말 여가시간	142.6	125.6	85.5	129.1	51.4	95.3	14.80***
주로 하는 여가활동							
자원봉사	1	1.2	0	0	4	4.1	
교계	2	2.4	2	3.5	5	5.2	
종교	5	6.0	7	12.3	8	8.2	
의례	0	0	0	0	2	2.1	
문화/관광	1	1.2	2	3.5	3	3.1	
TV시청	20	24.1	30	52.6	53	54.6	69.75***
미디어 이용	34	41.0	9	15.8	2	2.1	
스포츠/레포츠	3	3.6	1	1.8	3	3.1	
게임/놀이	5	6.0	1	1.8	2	2.1	
휴식	12	14.5	4	7.0	8	8.2	
기타	0	0	1	1.8	7	7.2	
주중 여가 함께 하는 사람							
주로 혼자	50	58.8	47	77.0	71	68.9	
가족	11	12.9	0	0	6	5.8	
친구/이웃	14	16.5	11	18.0	19	18.4	
동호회	2	2.4	1	1.6	2	1.9	
연인	8	9.4	1	1.6	1	1.0	
기타	0	0	1	1.6	4	3.9	23.93**
주말 여가 함께 하는 사람							
주로 혼자	19	23.5	38	63.3	65	67.7	
가족	6	7.4	5	8.3	10	10.4	
친구/이웃	32	39.5	10	16.7	14	14.6	
동호회	1	1.2	2	3.3	2	2.1	
연인	23	28.4	4	6.7	3	3.1	
기타	0	0	1	1.7	2	2.1	59.35***

	청년		중장년		노년		차이검정 (x2, F)
	빈도 (평균)	% (SD)	빈도 (평균)	% (SD)	빈도 (평균)	% (SD)	
여가시간 충분도	2.81	.93	3.08	.97	3.76	.93	25.39***
건강	7	8.4	29	46.8	47	46.5	
장시간 근로	30	36.1	8	12.9	8	7.9	
가족 돌봄	1	1.2	1	1.6	1	1.0	
여가비용 부담	27	32.5	12	19.4	10	9.9	
여가시설과 장소문제	3	3.6	2	3.2	6	5.9	78.90***
여가프로그램 문제	6	7.2	1	1.6	0	0	
여가정보 부족	3	3.6	0	0	4	4.0	
함께 할 사람 부재	3	3.6	2	3.2	7	6.9	
기타	0	0	2	3.2	3	3.0	
장애요인 없음	3	3.6	5	8.1	15	14.9	
n	85		62		106		-

* $p < .05$, ** $p < .01$, *** $p < .001$

수 있다.

1인가구의 여가생활에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생애주기별 차이를 살펴보면,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장시간 근로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 여가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중장년과 노년기 1인가구는 건강을 장애요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김포시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가족생활 실태

1인가구로 살아가지만 주거를 함께 하지는 않는 원가족과의 가족생활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가족관계 변화 정도, 원가족과의 만남(부모, 형제자매, 자녀), 가족과의 전화/문자,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 원가족에 대한 지원, 돌봄 가족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 생애주기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1인가구 독립 후 원가족과 관계가 변화된 정도(5점 척도)를 살펴본 결과, 청년기 1인가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중장년, 노년기 1인가구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가구의 원가족 만남에서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와의 만남에서 각각 생애주기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먼저 부모와의 만남을 보면, 청년기 1인가구는 가장 비중이 높은 정기적 만남에 이어 가끔 만남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장년기의 경우에는 가끔 만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정기적 만남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1인가구는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부모가 생존하는 경우에도 소통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형제자매 만남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가끔 만나는 비중이 높았다. 자녀와의 만남 정도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자녀가 있는 청년기 1인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수시로 연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장년기 1인가구의 경우는 소통하지 않거나 가끔 만나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노년기 1인가구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가끔 만남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부모와 소통하는 비율을 보면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수시 연락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기적 연락이라는 응답 비중도 높았다. 중장년기의 경우 정기적으로 연락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시 연락 비중도 높았다.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도 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수시 연락한다고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형제자매와의 전화 및 문자 연락 비율을 보면,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정기적으로 연락한다는 비중이, 중장년 및 노년기의 경우에는 가끔 연락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인가구가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도(5점척도)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생애주기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가구가 원가족을 지원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생애주기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적 지원의 경우 청년기 1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지원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돌보아야 할 가족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돌봄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존재한다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중장년기 1인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돌보아야 하는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표 6〉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가족생활의 차이

		청년		중장년		노년		차이검정 (x2, F)	
		빈도 (평균)	% (SD)	빈도 (평균)	% (SD)	빈도 (평균)	% (SD)		
1인가구 이후 가족관계 변화정도		3,2	1,00	2,81	1,40	2,86	1,06	2,91	
원가족과의 만남									
부모	소통 없음	1	1,3	3	10,0	4	42,9	37,2***	
	거의 하지 않음	5	6,4	0	0	3	21,4		
	가끔 가족행사 일이 있을 때만	32	41,0	13	43,3	3	21,4		
	정기적으로	34	43,6	11	36,7	2	14,3		
형제 자매	매일 수시	6	7,7	3	10,0	0	0	25,69*	
	소통 없음	2	2,6	10	20,8	8	14,5		
	거의 하지 않음	12	15,8	5	10,4	14	25,5		
	가끔 가족행사 일이 있을 때만	33	43,4	27	56,3	25	45,5		
자녀	정기적으로	22	28,9	4	8,3	7	12,7	22,11**	
	매일 수시	7	9,2	2	4,2	1	1,8		
	소통 없음	0	0	7	29,2	8	9,3		
	거의 하지 않음	2	16,7	3	12,5	8	9,3		
원가족과의 전화/문자	가끔 가족행사 일이 있을 때만	3	25,0	7	29,2	30	34,9	22,11**	
	정기적으로	2	16,7	5	20,8	33	38,4		
	매일 수시	5	41,7	2	8,3	7	8,1		
	소통 없음	0	0	7	29,2	8	9,3		
부모	거의 하지 않음	2	16,7	3	12,5	8	9,3	42,46***	
	가끔 가족행사 일이 있을 때만	20	25,3	6	18,8	2	18,2		
	정기적으로	26	32,9	14	43,8	1	9,1		
	매일 수시	29	36,7	9	28,1	2	18,2		
형제 자매	소통 없음	4	5,3	9	18,4	7	3,2	24,91**	
	거의 하지 않음	8	10,5	7	14,3	7	13,2		
	가끔 가족행사 일이 있을 때만	17	22,4	19	38,8	23	43,4		
	정기적으로	27	35,5	7	14,3	14	26,4		
자녀	매일 수시	20	26,3	7	14,3	2	3,8	19,18*	
	소통 없음	0	0	7	28,0	7	8,0		
	거의 하지 않음	0	0	3	12,0	10	11,4		
	가끔 가족행사 일이 있을 때만	1	9,1	4	16,0	20	22,7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	정기적으로	3	27,3	5	20,0	32	36,4	19,18*	
	매일 수시	7	63,6	6	24,0	19	21,6		
	경제적 지원	1,78	.79	1,55	.81	1,86	.98		2,04
	서비스 지원	1,48	.66	1,38	.63	1,74	.91		4,38
원가족에 대한 지원	정서적 지원	2,3	1,04	1,98	1,03	2,09	.99	1,72	
	경제적 지원	1,58	.67	1,52	.78	1,52	.81	.15	
	서비스 지원	1,51	.64	1,39	.64	1,44	.75	.52	
돌보는 가족 존재	정서적 지원	2,31	1,00	1,84	1,03	1,85	.92	5,74*	
	있음	11	14,1	18	29,5	16	15,2	6,66*	
가족 존재	없음	67	85,9	43	70,5	89	84,8		
	n	85		62		106		-	

* $p < .05$, ** $p < .01$, *** $p < .001$

4. 김포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모형의 VIF값이 1.1~3.4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생애주기, 1인가구 특성 변수 중 돌봄 가족원 존재, 자발성, 차별경험, 사회자본 변수 중 지역사회 인지수준, 유대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중장년기 1인가구에 비교하면 청년기 1인가구에서만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나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인가구로서의 특성 중,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돌봄 가족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자발적으로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1인가

구로서 겪은 차별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사회자본 변수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 유대가 높을수록 각각 생활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V. 논의

최근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그들의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1인가구의 일상생활을 다양한 영역, 즉 의식주생활과 가정관리, 돌봄, 여가, 경제생활로 분류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각 영역의 생활모습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 7>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인가구	
		B	SE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여성	.024	.079
	생애주기(기준: 중장년기 1인가구)		
	청년기 1인가구	.288	.126 [†]
	노년기 1인가구	.167	.120
	교육수준(기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72	.133
	고졸	.038	.117
	전문대졸	-.085	.145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92	.181
이혼·별거	-.023	.131	
사별	.018	.148	
1인가구 특성	1인가구 기간(기준: 5년 미만)		
	5~10년	-.117	.119
	10년 이상	-.081	.094
	돌봄가족원 있음	-.186	.104 [†]
	자발성	.172	.085 [†]
사회자본	차별경험	-.089	.044 [†]
	지역사회 인지수준	.063	.034 [†]
	유대	.112	.036 ^{**}
	상수	2.454	.197 ^{***}
	R ²	.193	
	F값	3.237 ^{***}	
	n	233	

[†]p<.10, ^{*}p<.05, ^{**}p<.01, ^{***}p<.001

첫째, 1인가구의 일상생활 양상이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는 점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점으로 미루어 1인가구들이 생애주기별로 다른 욕구와 문제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1인가구 생활만족도를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양상이다(강은나·이민홍, 2016; 노경혜 외, 2018; 김성천 외, 2020; 허철희 외, 2021; 황경란 외, 2021).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며, 청년기 1인가구들은 식생활과 주거생활관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 의료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의식주 생활에 대한 세대별 처한 상황이나 요구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식생활관리 측면에서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서 혼자하는 식사를 즐기지만, 식자재 구매와 낭비 등의 어려움이 더 크게 지각하고 배달음식 이용 정도가 높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특성 중 일로 인한 일상생활에 할애하는 시간부족, 편리성 추구, 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상대적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반대로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 균형잡힌 식사 선호도가 높고 배달음식 이용이나 혼자 식사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청년기 1인가구와 명료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식생활에서 생애주기 집단 간 차이를 볼 때 식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어 청년층의 경우 식생활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등과 같이 세대별 차별화를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생활의 경우 공간부족에 대한 인식, 수납공간의 부족, 지인 초대와 적합성 등의 세부항목에서 청년기 1인가구가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1인가구 주거지원에 있어 청년층의 경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납공간 등 공간확보를 우선순위로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 1인가구는 중장년기, 노년기 1인가구와 달리 연소득, 자산, 지출, 투자수준 모두에 있어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권안나, 2019; 허철희 외, 2021)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는 양상이다. 생애주기별 소득의 출처가 다르고 지출 영역, 자산이나 투자방식도 다름을 고려하여 1인가구의 재정관리계획은 생애주기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까지도 고려하여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때 1인가구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로 여가활동을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여가유형으로 TV시청이 가장 많았고 주로 홀로 여가를 즐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되나 여가시간의 충분성이나 여가생활 장애요인, 여가생활 만족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청년기 1인가구는 여가시간의 부족과 비용이 방해요인인 것에 비해 중장년기와 노년기 1인가구는 건강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정영금·윤소영, 2018)와 유사하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여가활동이 생애주기별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 지원방안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별 수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프로그램 진행 시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일지라도 청년기의 경우 시간고려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장년이나 노년기의 경우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돌봄 만족도는 생애주기별 유의한 차이가 없이 '보통'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1인가구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돌봄을 충분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돌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1인가구의 일상생활이 저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자기돌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1인가구의 삶이 홀로 산다는 점에서는 동일할지라도 생애주기별로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른 생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세대별로 의식주, 여가생활에 대한 개인의 경험 차이가 있고, 삶에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관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세대별 생활차이나 욕구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생활실태 역시 일상생활실태와 비슷하게 세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청년기 1인가구들은 중장년기 1인가구보다 원가족과의 정기적 만남을 하고 있었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장년기 1인가구는 부모의 생존여부나 자녀여부에 관계없이 가끔 원가족과의 왕래하거나 소원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기 1인가구의 경우 원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애주기에 따라 1인가구들이 보이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가족관계적 측면에서의 1인가구 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생애주기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기 이후부터 비공식적인 관계 중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만족스러울수록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이준희, 2017; 김순돌·이현희, 2012; 박영신·손주연·송옥란, 2017)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년과 중장년기 1인가구들의 가족생활실태 차이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청년기 1인가구에 비해 중장년기 1인가구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단절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1인가구로서 홀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기 1인가구들이 가족과의 원만한 상호작용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

해서 상호 안부를 나누고 정기적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 강화를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기 1인가구의 경우 원가족과 소통이나 만남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 정기적이면서도 자주 가족과의 만남이나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향후 소통이 단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세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면서도 각 가족원들의 개인생활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만 세대별로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1인가구는 자신의 일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규칙적으로 중장년 부모, 형제자매와 결속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장년 1인가구들은 노부모 부양 책임으로 원가족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노부모돌봄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접근으로 중장년 1인가구와 노부모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원가족과의 상호지원에 있어 세대별 차이를 보인 영역은 정서적 영역이었다. 청년기 1인가구는 중장년기 1인가구에 비해서 원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세대별로 원가족과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세대별 정서적 상호작용의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중장년기 1인가구에 비해 청년기 1인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선택이 자발적이고 1인가구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없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자발적인 독신자들이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자발적 1인가구들은 1인가구가 되기 전 준비와 설계 등의 차원에서 적극성과 시간자원의 충분도 등이 1인가구로서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자발적 1인가구가 아니라도 1인가구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초기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돌봄 가족원이 없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 1인가구들의 경우 1인가구로서 보다 여유있고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들을 통해 청년기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인가구는 원가족 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는데(김혜영 외 2007; 성미애·기쁘다, 2022), 비혼 1인가구의 경우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부양 및 책임을 갖고 있을 경우 즉 1인가구 중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청년기 1인가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원가족 부양책임감이 증가할수록 1인가구로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대에 관계없이 부양할 부모나 가족원이 있는 1인가구들의 경우 돌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가 원가족과 서로 정기적인 연락을 하고, 상호 지원하여 물리적 공간의 분리에도 원만한 의사소통과 적절한 친밀감을 갖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부모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을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부양부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게 되고 1인가구로서의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가족 부모나 가족에 대한 돌봄부담도 1인가구 세대별로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가족생활에서 정서적 지원여부의 세대별 차이에서도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세대별 원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양상을 세대별로 차이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1인가구에 대한 차별인식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1인가구들의 삶에 대해서 사회적 인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자본인 지역사회 인지 수준이나 유대감이 높을수록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점과 연계되는 지점이다. 즉, 1인가구자들의 삶을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삶으로의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1인 가구자들의 삶은 위축되고 소외될 것이다. 여러 가구유형 중 1인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지역사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고 유대감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인가구자로서의 삶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1인가구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에 있어 김포시 1인가구에 한정하여 실시되었고, 나아가 표집된 중장년기 1인가구의 비율이 크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가족센터, 재활센터 등을 현재 이용 중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이나 계층, 생애주기별 비율 등을 반영하는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중 인적 자원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인가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혔으며 세대별로 생활양상이나 생활만족도가 상이함을 밝힘으로써 향후 1인가구 지원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인가구 생애주기별 정책수립과 개입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은나·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34, 47-56.
- 2) 김정은·박정윤·서지원·송혜림(2022). [2022-01 연구보고서] 김포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김포복지재단. https://www.bestgcf.or.kr/bbs/board.php?bo_table=biznews&fq_id=5766.
- 3) 권안나(2019). 울산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가족정책 방향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4) 김미숙·김안나(2020).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1(1), 15-31.
- 5) 김성천·강남기·장지인(2020). 광명시 1인가구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입법정책연구원.
- 6)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희·김수진·이진숙(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20-56.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91에서 2022.05 인출.
- 7) 김재남(2021). 1인가구의 세대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중단분석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6(8), 187-196.
- 8)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가족재단
- 9) 노경혜(2021).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성남시 1인가구 포럼 자료집. <https://www.makehope.org/wp-content/themes/makehope/action/download.php?id=54838>에서 2023.06 인출.
- 10) 노경혜·이나런·황경란·임예슬(2018).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11) 박미선·이재춘·김근용·이윤상·천현숙·조영하·야마네 사토코(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https://library.krihs.re.kr/search/media/img/RPT000003614709?metsno=000000009796&fileid=M000000009796_FILE000001&type=down에서 2023.06 인출.
- 12) 박영신·손주연·송옥란(2017). 성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대처: 자기효능감 수준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23(22), 295-332.
- 13) 변미리·김석호·박민진·구서정(2019). 성남시 1인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14) 서지원·양진운(2017).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성별 생활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1인가구 시대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와 전략' 자료집. 290.
- 15) 성미애·기쁘다(2022).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미혼 1인가구 남성의 생활어려움과 관련된 가치 및 관계 변인. 가정과삶의질연구, 167, 75-86.
- 16) 송나경(2021).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성과 우울 영향. 인문사회, 11(4), 405-420.
- 17) 이명진·최유정·이상수(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18) 이준희(2017). 중장년층의 가족특성, 노후인식,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정순돌·이현희(2012).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 노인 세대의 비교. 노인복지 연구, 58, 209-232.
- 20) 정영금·윤소영(2018).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행태 분석. 가족자원경영과정책, 22(4), 1-15. DOI: 10.22626/jkfma.2018.22.4.001.
- 21) 통계청(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415446&ord=2에서 2023.06 인출.
- 22) 통계청(2022a). 통계로 보는 1인가구.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10820&list_no=422143&seq=1에서 2023.06 인출.
- 23) 통계청(2022b). 인구총조사.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030&list_no=422663&seq=1에서 2023.06 인출.
- 24) 통계청(2022c). 1인가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2에서 2023.06 인출.
- 25) 허철희·정민영·이유리·임선미(2021). 구리시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사회경제연구원.
- 26)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7) 황경란·박소영·박수선·조성희·최성은(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수원: 경기복지재단.

- 투 고 일 : 2023년 06월 15일
- 심 사 일 : 2023년 07월 06일
- 계 재 확 정 일 : 2023년 08월 03일